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김 경 희 이 희 정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본 연구는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비교하고자 한 탐색적 연구이다. 평균 연령 16세인 남자 품행장애 청소년 30명과 일반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Damon과 Hart(1988)의 자아 이해 모델에 따라 자아 정체성을 객체로서의 자아와 주체로서의 자아 두 가지 측면에 집단별 비교를 분석하였다. 자아 도식과 자아 수준에 따라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객체로서의 자아 측면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활동적 측면에 대한 반응이 더 많았으며, 사회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에 대한 자아 반응은 일반 청소년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또한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자아 반응에 있어서 범주적 동일시를 나타내는 1수준에서 반응을 더 많이 나타냈으며, 2, 3, 4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반 청소년들이 품행장애 청소년보다 자아에 대한 반응을 더 많이 나타냈다. 주체로서의 자아 측면에서 볼 때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독특성 측면에 대한 반응이 덜 빈번하였으며, 품행장애 청소년에 비하여 일반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와 체계적 신념과 계획과 같은 3, 4수준에 대한 자아 반응을 더 많이 나타냈다. 이상과 같이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비교한 결과 자아 수준에서 두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품행장애 청소년의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품행장애 청소년, 자아 정체성, 객체로서의 자아, 주체로서의 자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게 되는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모델 가운데 Blasi(1980)의 자아 모형에서는 도덕행동의 기초가 되는 주된 개념으로 책임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적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도덕적 판단 뿐 아니라 도덕적 이성애 따라 형성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책임감과 내적인 연속 상

태에 대한 지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아는 도덕적 판단의 원천이 되며, 이러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하였다(Blasi, 1980). 본 논문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도덕적 행위와 관련시킨 Blasi(1980)의 모형에서 출발하여 자아 이해를 체계화시킨 Damon과 Hart(1988)의 자아 모델을 토대로 품행장애 청

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공격성, 파괴적인 행동, 거짓말, 도벽 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품행장애에 대하여 체질적-유전적 이론, 학습이론, 다중요인 접근방식(multiple-factor approach), 두가지 분리된 신경학적 체계로 설명하고자 하는 “두 요인 가설”(Gray, 1981) 등의 접근이 있으나, 현재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품행장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품행장애는 넓은 범주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임상 증후군으로 생각되며 품행장애 청소년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는 우울증, 공격성, 가족관계 이외에 자아 발달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등이 시사되고 있는 정도이다.

자아정체성

자아 발달의 수준은 도덕적 행위와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lasi(1980)의 모델에서 자아 정체성은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동기적 요소이면서 개인차의 근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품행장애 청소년에게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관련시킨 Blasi의 접근은 Kohlberg의 도덕적 판단에 관한 구조의 발달을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동기적 역할을 하는 이상적 자아(ideal self) 즉 도덕화된 자아(moralized self)와 도덕적 성격으로 자아 정체성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Blasi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위간의 불일치 현상을 자아 정체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세상에 대한 인지적 이해에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품행장애 청소년의 부도덕한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Damon(1984) 역시 도덕 발달과 자아 이해 발달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자아 정체성과 도덕적 행위의 관련성을 지지한바있다. 아동기로부터 청년기까지의 피험자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Damon(1984)은 도덕성과 자아는 두가지 분리된 개념적 체계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자아개념(self-concept)을 대표하는 모형은 자기 도식 모형(self-schema model)이다. Markus(1977)에 의하면 개인의 사회적 경험 속에 포함된 자아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인지적 일반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자아 도식은 개인을 수반하는 특정 사건들과 상황들로부터 유도된 인지적 표상들과 개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 및 주위 사람들의 반복된 범주화와 평가에서 나온 보편적인 표상들을 포함한다

발달 심리학적 접근에서 자아 정체성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한 연구자들 중 대표적인 발달 이론가는 Damon과 Hart(1988)이다. 그들은 자아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위계적 발달 모형을 통하여 자아 이해에 관한 포괄적인 시도를 하였다. James의 me와 I에 관한 고전적 이론에 입각하여 자아의 객관적 측면을 ‘객체로서의 자아’로 보고, 이에 대한 구성 범주로 물리적 자아 도식, 활동적 자아 도식, 사회적 자아 도식, 심리적 자아 도식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자아의 주관적 측면을 ‘주체로서의 자아’로 보고, 이에 대한 구성 범주로 수행인 자아 도식, 연속성 자아 도식, 독특성 자아 도식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각각의 범주들은 범주적 동일성(categorical identifications)에 해당하는 1수준, 상대적 평가(comparative assessments)를 나타내는 2수준, 대인적 시사(interpersonal implications)에 해당하는 3수준, 체계적 신념과 계획(systematic beliefs and plans)을 나타내는 4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계적 자아 이해 모형을 제시하였다. Damon과 Hart의 모형은 구조적으로 사각형의 앞면과 옆면에 의해 나타난 두 가지 주요 차원에 따라 수평적으로 조직된다. 앞면은 James 이론의 “me”에 해당되며, 옆면은 “I”에 관한 개념적 인식을 나타낸다. 자아 이해 모형에서 수직적 차원은 자아의 분화와 통합을 통한 위계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에 관한 발달적 경향성을 연구한 결과(Bernstein, 1980; Broughton, 1978; Selman, 1980), 아동기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에 대한 심리적이고 사회 관계적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며 자기 통제 능력의 증가와 함께 의지적 힘과 내적으로 일관적이고 통합된 차원의 신념과 같은 아동기와 구별되는 측면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품행장애

본 논문은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부도덕한 행위를 자아 정체성 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기존의 품행장애에 대한 연구에서는 신경심리적 전통에 입각하여 충동성과 시간 감각의 오류와 같은 신경계의 실행 기능상 차이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Barkley, 1997). 즉 충동적 성격 유형이 한 개인의 성격과 다양한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충동적인 성향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동의 결과에 대한 판단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조절을 간섭하여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설명하고 있다(Moffitt, 1993).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은 지각적 부정확성이나 중재왜곡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고 보다 덜 관

습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관념적 충동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하였다(양익홍, 2000).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자극상황을 가장 다루기 쉬운 수준으로 단순화하는 반응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정보처리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 중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경우가 전체 품행장애의 과반수, 특히 외래로 내원한 품행장애 청소년의 경우 모두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보이는 비행 중 상당수가 정서문제와 관련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며, 자기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며, 무엇보다 우울을 동반한 품행장애 집단은 더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고 있었다(양익홍, 2000).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형식적 조작적 사고를 잘 하지 못하며, 공감능력이나 타인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품행장애의 경우 대인관계와 관련된 갈등상황에서 적절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주장적 행동이나 목표 지향적인 행동보다는 일시적으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음주, 약물 남용 등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기 쉽다.

한편 발달의 체제화 조망을 수용하는 발달정신병리학자들은 품행장애는 개인의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Noam(1984)과 Rutter와 Garmezzy(1983)는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회 인지적 오류가 나타나므로 병리적 행동이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인지적 적응과 재조직화 능력에 대한 중재를 통하여 일

탈된 사회인지적 오류를 수정하여 줌으로써 치료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Richters와 Cicchetti(1993)는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행동에 대해 조직적 접근을 통하여 신경학적 역기능과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동중기에 품행장애를 가진 아동은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며,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며, 이에 따라 학문적 성취에 가치를 덜 부여하며, 독립성을 더욱 강조하며, 이탈에 대하여 허용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와 또래의 기대에 덜 부합한 행동을 일삼게 되며, 이같은 비규범적 행동은 약물남용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에 더 많이 관여하게 하며, 결국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되게 된다고 하였다.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신념체계를 갖고 있으며, 타인을 비난하며, 권위에 대하여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제한된 통제감을 경험하며, 분노 감정을 갖는 동시에 사회적 제약없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아정체성과 품행장애의 관계

품행장애를 도덕적 행위에 대한 위반을 나타내는 행동상 장애라고 할 때, 그들의 도덕적 추론뿐 아니라 자아 수준 및 자아 정체성에서도 발달적 지연이 나타난다는 것이 Blasi(1983)의 자아모델에서 시사하는 바를 할 수 있다. 이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고 있다. Noam, Paget, Valiant, Borst와 Bartok(1994)은 정서장애를 가진 청소년에 비해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자아 발달 수준이 낮다고 하였다. Frank와 Quinlan(1976)은 십대 소녀를 대상으로 Loevinger의 문장완성 검사를 사용하여 청소년 비행은 자아발달의 수준과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즉, 비행 청소년 여아는 정상 청소년에 비해 자아발달 수준이 더 낮으며, 자아 방어적 단계(E3)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에게서 비행과 문제행동이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Noam과 동료들(1984)은 품행장애를 포함하여 “연령-단계의 불일치(dysynchrony)”의 기능으로서 청소년 병리에 대한 자아발달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는 아동기 시기의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또래집단으로의 전이시기에 나타나는 불안과 좌절로 인한 청년기 시기의 공통적 문제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자아발달이 낮은 청소년들은 성인기로의 전이기에 대한 능동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Damon과 Hart(1988)는 자아 이해 모형은 정신 건강을 예측해 주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자아 발달이 지연된 경우 품행장애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자아 발달 수준이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과 같은 내면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Loevinger, 1997). 또한 자폐증, 섭식 장애와 같은 병리적이고 일탈된 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연구들(Garner & Bemis, 1985; Hart, Fegley, & Brengelman, 1993; Lee & Hobson, 1998; Melcher, 1986)과 비교 문학적 연구들(Geertz, 1975; Le Vine, 1980; Lucca, 1980)도 이루어지고 있다.

Damon과 Hart의 이전 연구에서 품행장애 청소년을 일반 청소년 집단과 비교한 결과(Melcher, 1986), 시간에 따른 연속성 측면에서 일반 청소년과 품행장애 청소년간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Melcher(1986)는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가족, 친구와 사회 관계망 안에서 미래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통합력이 없고,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자아의 연결된 모습을 덜 나타내며, 발달적

로 미성숙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 능력과 관련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섭식 장애를 가진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Garner & Bemis, 1985). 운동 선수들이나 척추 만곡증과 같은 특별한 신체적 우월성이나 신체적 열등감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 연속성이나 독특성과 관련하여 이같은 특징들에 대한 언급이 많은 반면,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나 어촌의 청소년들의 경우, 자아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도 보다 구체적인 응답이 많았다(Le Vine, 1980). 무엇보다 섭식 장애를 가진 여자 청소년들(Garner & Bemis, 1985)과 품행 장애인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Melcher, 1986) 미래에 대한 조망 능력이 부족하여 그 당시의 기분에 따라 순간적 판단에 근거한 충동적 행동을 나타내며, 이는 연속성 자아 도식에서 일반 청소년들보다 자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 차원에서 품행장애 청소년에 관한 중재와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발달 정신병리학자들은 일탈된 발달 경로에서 정상 발달로의 이행을 촉진해 주는 보호 요소(protective factor)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호요소란 아동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많은 위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게 하는 요인을 말한다(Rutter, 1990). 다시 말하면 위험에 처한 아동이 적응적 발달을 이룰 수 있게 하거나 적응적 결과와 상관이 있는 개인적 혹은 환경적 특성들에 해당한다(Cicchetti & Rogosch, 1999).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아상(self-image)의 증진도 일탈된 발달 경로에 대한 보호 요소로 볼 수 있다(Born, Chevalier, & Humblet, 1997).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

구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발달의 조직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Damon과 Hart의 자아 이해 모형에 근거하여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반응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품행장애 청소년의 부적응적 상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치료 및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남자 품행장애 청소년 30명과 일반 청소년 30명이었다. 품행장애 청소년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근로 청소년 회관 1곳, 사

표 1. 청소년의 표집기관과 특성

품행장애 청소년	
표집기관	청소년의 특성
서울시 소재 근로 청소년 회관	절도 죄로 소년 심판 규칙 제 34조에 의거하여 4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20명과 아동 상담센터로부터 위탁된 청소년 2명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 시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 청소년 1명과 친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시설에 위탁된 청소년 2명
경기도 소재 신경정신과 의원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중류인 품행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중인 청소년 5명
일반 청소년	
표집기관	청소년의 특성
서울 및 경기도 소재 인문계 중·고등학교 3곳	지능이 정상이고, 청소년 가족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중 하류 수준 이면서 학생 생활기록부와 담임 교사의 행동 평가에서 무단 결석, 비행이나 물질 남용의 경력이 없는 청소년 30명

회복지 시설 1곳 및 신경정신과 1곳, 총 3개의 기관에서 DSM-IV 준거에 따라 정신과 의사와 임상 심리학자에 의해 품행장애로 진단받은 남자 청소년 30명이었다. 이들은 품행장애 이외의 다른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없으며, 지능 수준이 정상적 범위(IQ 80-119)에 속하며 1983년도에서 1985년도 사이에 출생한 만 15-17세 청소년들이었다. 비교 집단인 일반 청소년 집단은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인문계 중·고등학교 3 곳에 재학중인 품행장애 집단과 동일한 연령인 남자 청소년 30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표집 기관과 청소년의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의 자아 정체성은 Damon과 Hart(1988)의 자아 이해 모형에 근거하여 객체로서의 자아와 주체로서의 자아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객체로서의 자아는 4가지 자아 도식, 즉 물리적 자아 도식, 활동적 자아 도식, 사회적 자아 도식, 심리적 자아 도식의 네 측면과 4가지 자아 수준, 즉 1수준은 범주적 동일시, 2수준은 상대적 평가, 3수준은 대인간 시사, 4수준은 체계적 신념과 계획의 16가지(도식 4가지×수준 4가지) 범주로 구분되었다. 주체로서의 자아는 3가지 자아 도식과 4가지 자아수준으로 분류된다. 자아수준은 수행인 자아 도식, 연속성 자아 도식, 독특성 자아 도식이며, 4가지 자아 수준은 범주적 동일시에 해당하는 1수준, 상대적 평가에 해당하는 2수준, 대인간 시사에 해당하는 3수준과 체계적 신념과 계획에 해당하는 4수준이다. 즉 주체로서의 자아는 12가지(도식 3가지×수준 4가지) 범주

로 나뉘어진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측정은 Damon과 Hart의 자아 이해 면접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자아 정의, 자아 평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자아, 자아 흥미, 수행인, 연속성과 독특성에 관한 기본적 질문과 탐문(Damon & Hart, 1988)을 통하여 개별적 면접을 실시하였으며(부록 I 참조), 청소년들의 반응은 자아 도식과 자아 수준별 평정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였다¹⁾. 예비 면접을 통하여 산출된 평정자간 일치도는 객체로서의 자아와 주체로서의 자아 각각에 대하여 kappa계수로 .87과 .89이었다. 이는 Lee와 Hobson(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일치도인 .84와 .7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절 차

본 연구에 앞서 2차례에 걸친 예비 면접을 실시하였다. 1차 예비 면접은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탐문을 결정하고 연구 절차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2차 예비 면접에서는 자아 정체성에 관한 채점 지침서에 근거하여 제 1 채점자와 제 2 채점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면접은 2000년 5월과 7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분절(chunk)은 자아 정체성에 관한 기본 질문과 탐문에서 얻어진 청소년들의 반응의 단위이다(Damon & Hart, 1988)(<부록 1>과<부록 2>참조). 네 가지 자아 도식(A:물리적 자아 도식, B:활동적 자아 도식, C:사회적 자아 도식, D:심리적 자아 도식)과 네 가지 자아 수준(1: 1수준, 2: 2수준, 3: 3수준, 4: 4수준)에 해당하는 16가지 자

1) 자아도식과 자아 수준별 평정 기준은 『이희정(2001). 품행장애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자아 정체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참고할 것.

아 범주에 포함된 객체로서의 자아에 관한 분절과 세 가지 자아 도식(E: 수행인 자아 도식, F: 연속성 자아 도식, G: 독특성 자아 도식)과 네 가지 자아 수준(1: 1수준, 2: 2수준, 3: 3수준, 4: 4수준)에 해당하는 12가지 자아 범주에 포함된 주체로서의 자아에 관한 분절의 합을 산출하였다.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반응의 분포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결 과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이 자아 도식과 자아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아 도식과 자아 수준에서의 객체로서의 자아 반응

품행장애 청소년의 객체로서의 자아에 대하여 자아 도식과 자아 수준에 따라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기 위하여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나타낸 객체로서의 자아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χ^2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이를 도식

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아 도식에 따른 객체로서의 자아는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은 활동적 자아 도식(48%)에서, 일반 청소년 집단은 물리적 자아(11.6%), 사회적 자아(25.0%), 심리적 자아(23%)에서 더 많은 반응이 나타났다.

표 2.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도식에 따른 객체로서 자아

집단	물리적 자아	활동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심리적 자아	계
장애 (n=30)	45(11.3)	192(48.2)	86(26.6)	75(18.8)	398(47.5)
일반 (n=30)	51(11.6)	178(45.5)	110(25.0)	101(23.0)	440(52.5)
계	96(11.5)	370(44.2)	196(23.4)	176(21.0)	838(100.0)
	12.39	8.36	32.14	15.68	31.75
χ^2	p<.05	n. s.	p <.001	p<.05	p<.01

다음으로는 본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자아 수준에서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나타낸 객체로서의 자아 반응의 빈도와 백분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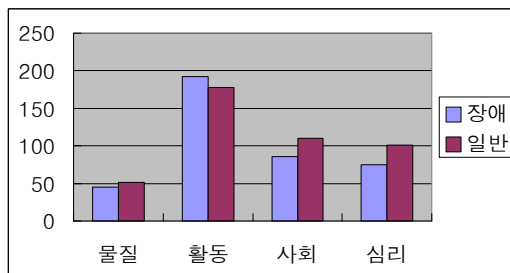


그림 1.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도식에 따른 객체로서 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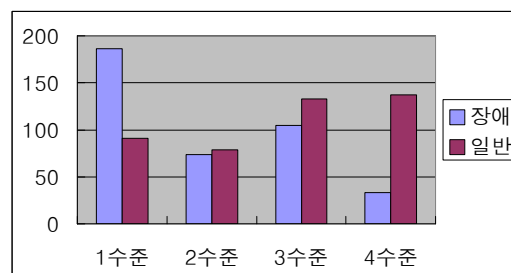


그림 2.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수준에 따른 객체로서 자아

구하고 χ^2 검증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3에 각각 제시되었다.

표 3.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수준에 따른 객체로서 자아

집단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계
장애 (n=30)	186(46.7)	74(18.6)	105(26.4)	33(8.3)	398(47.5)
일반 (n=30)	91(20.7)	79(18.0)	133(30.2)	137(31.1)	440(52.5)
계	277(33.1)	153(18.3)	238(28.4)	170(20.3)	838(100.0)
χ^2	24.06 p<.05	7.10 n. s.	15.95 n. s.	41.00 p<.001	30.89 p<.01

그림 2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청소년 집단과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2수준(18.0%), 3수준(30.2%), 4수준(31.1%)에서, 품행장애 집단에서는 1수준(46.7%)에서 더 많은 자아 반응이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의 경우, 더 낮은 수준에서의 반응들이 빈번하게 많이 나타났다.

자아 도식과 자아 수준에 대한 주체로서의 자아 반응

다음은 본 연구 대상 청소년들이 응답한 주체로서의 자아를 자아 도식과 자아 수준에 따라 비교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χ^2 검증한 결과는 그림 3과 표 4와 같다.

본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자아 도식에 따른 주체로서의 자아를 살펴보면 연속성과 수행인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독특성 자아 도식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 청소년 집단(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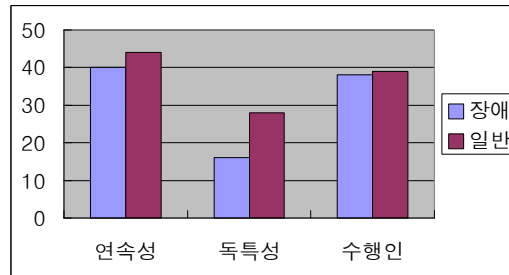


그림 3.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도식에 따른 주체로서 자아

표 4.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도식에 따른 주체로서 자아

집단	연속성	독특성	수행인	계
장애(n=30)	40(42.6)	16(17.0)	38(40.4)	94(45.9)
일반(n=30)	44(39.6)	28(25.2)	39(35.1)	111(54.1)
계	84(41.0)	44(21.4)	77(37.6)	205(100.0)
χ^2	3.91 n. s.	16.85 p<.001	6.00 n. s.	9.07 p<.01

에 비하여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17.0%)의 반응이 더 적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 청소년들이 응답한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자아 수준간 차이를 비교하고자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χ^2 검증한 결과를 그림 4와 표 5에 각각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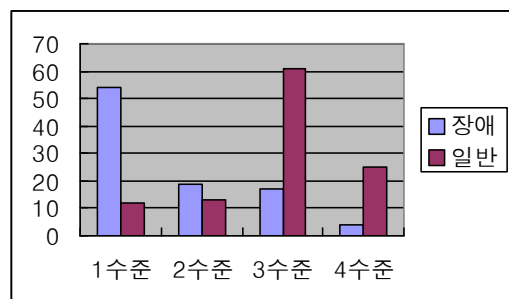


그림 4.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수준에 따른 주체로서 자아

표 5.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수준에 따른 주체로서 자아

집단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계
장애 (n=30)	54(57.4)	19(20.2)	17(18.1)	4(4.3)	94(45.9)
일반 (n=30)	12(10.8)	13(11.7)	61(55.0)	25(22.5)	111(54.1)
계	66(32.2)	32(15.6)	78(38.0)	29(14.1)	205(100.0)
χ^2	30.22	7.64	30.65	13.42	9.90
	p<.001	p<.05	p<.001	p<.001	p<.01

본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응답한 주체로서의 자아는 1수준(57.4%)과 2수준(20.2%)에서는 품행장애 집단이, 3수준(55.0%)과 4수준(22.5%)에서는 일반 청소년 집단이 더 많은 반응을 나타냈다.

논 의

본 절에서는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비교를 객체로서의 자아와 주체로서의 자아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객체로서의 자아

자아 도식에 대한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객체로서의 자아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자아 도식 즉, 물리적 자아 도식, 활동적 자아 도식, 사회적 자아 도식, 심리적 자아 도식을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본 결과 차이가 나타났다.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 활동적 측면에 대한 언급(44.2%)이 가장 빈번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시기에 스

스로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영속성과 통합성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라고 하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학업수행 활동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내용 분석 결과 동일한 활동적 자아 도식 안에서 점수화 되었다 할지라도 본 연구 대상인 품행장애 청소년의 경우는 반사회적이고 충동적 행동 및 이탈과 관련된 언급이 빈번하였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된 입시와 관련된 학업수행의 언급이 많이 나타났으므로, 동일한 활동적 자아 도식에 해당하는 자아 점수의 경우에도 활동적 자아 도식의 내용과 의미의 측면에서 볼 때 집단 별로 상이한 성질을 띄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사회적 자아 도식에 대한 자아 점수에서도 이와 유사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품행장애 집단의 경우는 가족 관계, 친구 관계와 사회적 환경에 대한 기술에 있어서 내용적 측면에서 부정적 언급이 빈번하였으나,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품행장애 집단과 비교하여 교사나 친구들로부터의 도움을 통한 자신감 회복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였다. 또한 같은 물리적 자아 도식 안에서도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불안정한 환경적 특성, 가족 갈등이나 학대로 인한 상처에 대한 흔적이나 신체적 왜소함으로 인한 부정적 자아상에 대한 언급이 많은 반면,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많아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Damon과 Hart의 자아 이해 모형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자아 발달의 양상을 검증해 본 Lucca(1980)의 미국 도시 청소년과 푸에르토리코 어촌 및 미국 농촌 집단 청소년들을 비교한 연구와 Geertz(1975)의 발리 섬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Le Vine(1980)의 농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도시 청소년들은 사회적 자아 도식과 심리적 자아 도식에서의 자아 점수가 높아지는 반면, 농촌과 어촌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특성을 사회적이고 심리적 맥락에서 추상화시켜야 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언어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면접 상황에서 탐문을 하더라도 심리적 도식에 해당하는 자아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하여 Damon과 Hart는 특정 문화권에서 필요한 적응적 반응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아 도식에서의 반응 내용으로 볼 때에도 사회적 자아 도식과 심리적 자아 도식에서 주로 화목한 가족을 갖는 일, 좋은 가장이 되는 일과 같은 자신의 가족내 역할에 대한 반응이 특히 빈번하였던 본 연구 결과는 Markus와 Kitayama(1991)가 제안한 바와 같이, 미국 문화권에 비하여 아시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중요성과 개인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상호 의존적 자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 수준에 대한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객체로서의 자아

본 연구 대상인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자아 수준 즉, 범주적 동일시에 해당하는 1수준, 상대적 평가에 해당하는 2수준, 대인간 시사에 해당하는 3수준, 체계적 신념과 계획에 해당하는 4수준에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과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본 결과, 자아 수준에 따라서 품행장애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행장애 집단의 경우 1수준(46.7%), 3수준(26.4%), 2수준(18.6%), 4수준(8.3%)의 순으로 반응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 4수준(31.1%), 3수준(30.2%), 1수준(20.7%), 2수준(18.0%)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객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반응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수준에서의 자아 점수는 품행장애 집단에서 월등히 높았으나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낮았다. 반면 2, 3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품행장애 집단보다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자아 반응이 더 많아졌다. 자아에 대한 언급을 집단별로 비교해 볼 때 자아 수준이 1수준에서 2, 3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보다는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의 자아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아짐을 뜻한다.

한편 Damon과 Hart의 위계적 자아 이해 모형에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발달적 재조직화가 이루어짐을 뜻한다고 볼 때, 품행장애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발달적으로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 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Noam, Paget, Valiant, Borst와 Bartok(1994)은 이같은 품행장애 청소년이 나타내 주는 수준에서의 간격을 일컬어 ‘발달적 지연’이라고 한 바 있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의 이상적 자아와 새로운 정체를 형성하려는 강한 욕구로 인하여 자신의 자아를 다양한 측면으로 분화시켜 매우 세분화된 자아 조망을 갖는 반면, 자신의 자아 경계를 설정하고자 이를 다시 재통합해야 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내성(introspection)을 향한 극적인 관심이 생기고,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숙고(reflection) 경향이 증가된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청소년들 자신의 관심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타인과 자신간 주의 깊은 관찰이 이루어지며, 이같은 경향성은 본 연구에서 일반 청소년의 경우, 3, 4수준에서 자아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교와 객관적 측면에서 자신을 통찰해 보는 노력보다는 감각 추구적 성향으로 인하여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으면서 (Ajzen, & Fishbein, 1980), 사고보다는 행동을 우선시하는 반응양식(양익홍, 2000)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지각적 부정확성이나 중재왜곡과 같은 문제는 본 연구에서도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자아 조직화 수준에서 일반 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된 것이라 사료된다.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비교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아 도식과 자아 수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 도식에 대한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주체로서의 자아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자아 도식 즉, 수행인 자아 도식, 연속성 자아 도식, 독특성 자아 도식에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자아 도식에 따라서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모두 연속성 자아 도식과 수행인 자아 도식에서의 자아 점수가 독특성 자아 도식에서의 자아 점수보다 더 높았다. 이같이 독특성 자아 도식의 점수가 낮은 것은 서양에 비하여 볼 때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사회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로 보고 관계 속에 내포

된 역할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한다(Miller, 1984). 따라서 자기에 대한 해석 양식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상황과는 분리된 독특한 개별적 자아 개념이 우세하지만,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스스로를 파악하는 상호 의존적 자아(interdependent self)의 개념이 우세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독특성 자아 도식에서의 자아 점수가 공통적으로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적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특성 자아 도식에서의 자아 반응은 수행인 자아 도식이나 연속성 자아 도식에서의 반응에 비하여 낮은 빈도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간 질적인 차이도 나타났다.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은 자신과 타인의 독특함이나 개성적 측면에 대한 주관적 자아에 관한 언급보다는 타인의 시각에서 파악된 또는 자신의 환경적 상황에 대한 합리화나 비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나타낸 자신에 대한 독특성은 내적이고 주관적인 자아 준거 체계에 따른 자신의 독특함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가족이나 또래들로부터 부정적으로 취급당하는 것과 같은 외적 준거 체계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독특성에 대한 지각에서 일반 청소년에 비교하여 볼 때 차이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가족적 상황과 같은 외적 준거 체계를 통한 독특성에 대하여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이같은 부정적 자아상에 대한 지각은 집단적 차원에서 사회 전체에 대한 반항이나 체제 비판으로 발전되거나, 개인적 차원으로 볼 때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무기력해하거나 우울해 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심리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비행 청소년으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대상에 대한 종단적 추적 연구 결과 (Born, Chevalier, & Humblet, 1997; Noam, Christopher, Recklitis, & Paget, 1991), 탄력성을 나타내어 일반 청소년으로 돌아온 경우, 자아상의 증진은 위험한 발달적 경로에서 정상 경로로 변화되는 데 중요한 개인적 자원이라고 한 바 있다.

자아 수준에 대한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주체로서의 자아

품행장애 청소년의 주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반응은 일반 청소년과 다르게 나타났다. 품행장애 집단의 경우 1수준(57.4%), 2수준(20.2%), 3수준(18.1%), 4수준(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청소년 집단의 경우, 3수준(55.0%), 4수준(22.5%), 2수준(11.7%), 1수준(10.8%)의 순서로 빈도가 많이 나타났다. 즉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은 1, 2수준과 같이 낮은 수준에서 자아 반응이 많이 나타난 반면, 일반 청소년 집단은 3, 4수준과 같은 높은 수준에서 반응이 더 빈번하였다.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에 비해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자아 점수는 상승되었다. 따라서 Damon과 Hart의 자아 이해 모형에서의 각각의 수준은 위계적임을 고려해 볼 때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하여 대인간 시사에 해당하는 3수준과 체계적 신념과 계획에 해당하는 4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Melcher(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Melcher(1986)의 연구에서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가족, 친구와 사회 관계망 안에서 자신에 대한 통합 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함으로써 1수준과 2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하였다. 즉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 지각에 있어서 특히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속성을 지각하지 못하여 현재 자신이 나타내는 감각 추구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한 조망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Kazdin, 1997). 그러므로 이같은 경향성은 품행장애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달 과업에 직면할 때에도 사회적 지원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힘이나 요행에 의존하게 만들고 품행장애 청소년의 공격적이고 충동적 행동 특성을 지속시키게 하고 볼 수 있다.

부가적으로 실시된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자아 정체성에 관한 내용 분석에서도, 연속성 측면에서 품행장애 집단은 단순히 범주적 동일시를 많이 하였다. 예를 들면 과거와 현재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얼굴”이나 “이름”이라고 응답한데 비해서,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포함하는 활동적 속성들과 타인에 대한 계속적 재인을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일반 청소년 집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은 변함이 없다는 의사소통적 요소를 들어서 자신의 연속성을 설명하였다.

자아 정체성을 자아 의식의 연속성과 동일성이라고 볼 때 객체로서의 자아의 모든 측면은 주체로서의 자아의 수행인 자아 도식과 통합된다고 한다(Damon & Hart, 1988).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외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본 반면(1수준), 일반 청소년들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 및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수준). 최진숙과 조수철 및 홍강의(1991)도 보호 관찰중인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도움 추구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비행 청소년들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이 현저히 낮다고 하였는데, 이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사소통적 자아 인식 수준에서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은 주변의 친구나 교사와 의논을 하면 문제해결을 손쉽게 할 수도 있으나,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사회적 자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으므로, 의사결정이 용이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 및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과 관련한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에 있어서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 30명, 품행장애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면접하였는데, 이는 전체 품행장애 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품행장애 집단도 사회화된 품행장애 집단과 비사회화된 품행장애 집단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품행장애 안에서도 우울을 동반한 품행장애와 같이 정서 장애 및 다른 병리적 증상, 예를들면 주의력 결핍과 활동 장애와 적대적 반항 장애와 같이 다른 병리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원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16세 남자 품행장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여자 청소년 또는 연령변화에 따른, 즉 아동기 및 청년기 병리와 관련된 다양한 대상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와 관련된 것이다. 자아 정체성은 Damon과 Hart(1988)의 모델 및 채점 지침서에 따라 평정되었으나 국내에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고 비교 문화적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 이해 면접에서의

탐문을 통하여 자기 개방을 하는 정도는 다르므로(Geertz, 1975; Le Vine, 1980; Lucca, 1980) 추후 연구를 통하여 보다 명확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품행장애라는 발달에 있어서 이탈된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간 차이를 Damon과 Hart(1988)의 자아 모델에 입각하여 개별적 면접을 통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으며, 품행장애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품행장애 청소년들은 그들이 나타내는 거짓말, 도벽과 이탈 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성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연속성, 독특성과 자아 통제 측면에서의 발달적 지연과 관련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치료 및 중재 프로그램에는 자아 정체성의 차원을 세분화하여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활동적 측면뿐 아니라 또래 관계의 측면에서의 유능성과 자신에 대한 통찰력 및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조망의 측면에서 본 자신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발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발달 정신병리적 차원에서 볼 때 계속적으로 보다 많은 연령 범위의 연구 대상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단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품행장애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의 수준과 내용을 통하여 장애의 발달적 경로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는 품행장애 청소년의 발달 경로에서의 위험 요소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 요소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보다 명확해 질 것이며, 이는 미래의 연구에서 확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이희정(2001). 품행장애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자아 정체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익홍(2000). 품행장애의 로샤 반응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853-861.
- 진성오(2000). 품행장애 청소년의 충동성과 내적 시간 감각에 대한 실험연구. 심리학연구, 20(2), 81-103.
- 최진숙, 조수철, 홍강의(1991). 비행 청소년과 학생 청소년의 도움추구 행동상의 특징에 관한 비교연구. 정신의학, 17(2), 122-129.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NJ: Prentice-Hall.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rkley, R. A. (1997). Behavioral inhibition, sustained attention, and executive function: Constructing a unifying theory of ADHD. *Psychological Bulletin*, 121(1), 65-94.
- Bem, D., & Allen, A. (1974). On predicting some of the people some of the time: The search for cross-situational consistencies in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12, 144-155.
- Bernstein, R. M. (1980). The development of the self-system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6, 231-245.
- Blasi, A. (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1-45.
- Born, M., Chevalier, V., & Humblet, I. (1997). Resilience, desistance and delinquent career of adolescent offenders. *Journal of Adolescence*, 20, 679-694.
- Bowen, H. (2002). *The self-schematic processing of adolescents diagnosed with depressive disorder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Broughton, J. M. (1978). The divided self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4, 13-32.
- Cicchetti, D., & Rogosch, F. A. (1999). Psychopathology as risk for adolescent substance use disord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8(3), 355-365.
- Damon, W. (1984). Self-understanding and moral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In W. Kurtines & J. Gewirtz(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 Damon, W., & Hart, D. (1988). *Self-understand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ner, D., & Bemis, K. (1985). Cognitive therapy for anorexia nervosa. In D. Garner, & P. Garfinkel(Ed). *Handbook of psychotherapy for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w York: Guilford Press.
- Geertz, C. (1975). On the nature of anthropological understanding. *American Scientist*, 63, 47-53.

- Gordon, C. (1968). Self-conceptions: Configurations of content. In C. Gordon, & K. J. Gergen(Eds.), *The self in social interaction*. New York: Wiley.
- Gray, J. A. (1981). A critique of Eysenck's theory of personality. In H. J. Eysenck(Ed.), *A model for personality*(pp. 246-276). Berlin: Springer-Verlag.
- Grotevant, H. D. (1987). Toward a process model of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 203-222.
- Hart, D., Fegley, S., & Brengelman, D. (1993). Perceptions of past, present and future selv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1, 265-283.
- Kaplan, H., & Sadock, B. (1988). *Clinical psychiatry*. Baltimore, MD: Williams & Wilkins.
- Kazdin, A. (1997). Practitioner review: Psychosocial treatments for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2), 161-178.
- Lee, A., & Hobson, R. P. (1998). On developing self-concepts: A controlled stud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utis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8), 1131-1144.
- Le Vine, R. (1980). Anthropology and child development. In C. Super & S. Harkness(Ed.),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chil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Loevinger, J. (1997). Stages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R. Hogan, J. Johnson, & S. Briggs(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pp.199-208).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ucca, N. (1980). *The study of fishing communities: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Unpublished qualifying paper, Harvard University.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pp. 159-187). New York: John Wiley.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cGuire, W., & Padawer-Singer, A. (1976). Trait salience in the spontaneous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743-754.
- Melcher, B. (1986). *Moral reasoning, self-identity, and moral action: A study of conduct disorder in adolescence*. Ph. D. Diss., University of Pittsburgh.
- Miller, J. G. (1984). Culture and the development of everyday social expla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61-978.
- Moffitt, T. E. (1990). Juvenile delinquency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Developmental

- trajectories from age 3 to 15. *Child Development*, 62, 893-910.
- Moffitt, T. E.(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 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Noam, G. (1984). Developmental dynamics of self and morality: Stage, phase and style. *Moral Educational Forum*, 9, 2-19.
- Noam, G. G., Paget, K., Valiant, G., Borst, S., & Bartok, J. (1994). Conduct and affective disorders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A systematic study of adolescent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519-532.
- Noam, G. G., Christopher, J., Recklitis, C., & Paget, K. (1991). Pathways of ego development: Contributions to maladaptation and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3), 311-328.
- Richters, J. E., & Cicchetti, D. (1993). Mark Twain meets DSM-III-R: Conduct disorder, development, and the concept of harmful dysfunc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29.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pp.181-2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ter, M., & Garnezy, N. (1983).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Ed). Hetherington. New York: Wiley.
- Selman, R.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New York: Academic Press.
- Snyder, S., & Feldman, D. (1984). Phases of transition in cognitive development: Evidence from the domain of spatial representation. *Child Development*, 55, 981-989.

Self identity in Conduct Disordered-, and Comparison Adolescents

Maria Kyu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Hee-jung Lee

Social Welfare Division, Chnoean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self identity in conduct disordered-, and comparison adolescents. Specifically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self identity through "the self-as-object" and "the self-as-subject" based on Damon and Hart(1988)'s developmental model of self-understanding. The subjects were 60 adolescents, 30 each for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on DSM-IV criteria, and 30 each for normal adolescents, most of whom come from of middle to low-middle socioeconomic statu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hi-squares to examine conduct disordered and normal adolescents' self identity.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duct disordered-, and normal adolescents; In the responses of self-as-object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showed more self response in active scheme and normal adolescents in phys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schemes. In the responses of self-as-subject,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showed less self responses in distinctness and lower developmental level than normal adolescents.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were focused on categorical identification(level1), but normal adolescents were focused on interpersonal implication(level3) and systematic beliefs and plans(level4). Cultural comparison between western and Korean self concept was suggested.

keywords: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self identity, self-as-object, self-as-subject

부록 I.
자아 이해 면접 문항들

자아범주	문 항	질문과 이에 따른 탐문
객체로서의 자아	문항1: 자아 정의 (Self-definition)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탐문):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같은 특성이 그렇지 않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항2: 자아 평가 (Self-evaluation)	자신에 대해 특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랑스럽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탐문): 그것은 당신에 대해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문항3: 과거와 미래에 있어서의 자아(Self in past and future)	자신의 5년 뒤 모습이 지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른이면 어떤 것 같습니까? 5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이였을 때는 어떠했지요? (탐문): 예전과 똑같은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왜 그것이 중요하지요?
	문항4: 자아 흥미 (Self-interest)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소원이 세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탐문): 왜 당신은 그런 것들을 바랍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밖에 바라거나, 소원하거나 선한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좋아하지요?
주체로서의 자아	문항5: 연속성 (Continuity)	당신은 해마다 바뀔니까? 어떻게 바뀌지요? 해마다 바뀐다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탐문): 어떤 면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게 왜 중요하지요?
	문항6: 수행인 (Agency)	당신은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되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당신을 지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지요? (탐문): 그것은 어떠한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지금의 당신과 같이 만든 유일한 이유입니까? 그밖에 당신을 다르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7: 독특성 (Distinctness)	당신과 똑같이 생긴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와 무엇이 다르지요? (탐문):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측면에서 다르지요? 당신은 모든 사람과 다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만 다릅니까? 당신은 세상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부록 II.

자아 이해 분절 채점 원칙과 몇 가지 예들

자아분절 채점원칙	질문과 이에 따른 탐문 및 반응 예	채점 방법
1. 자아분절은 면접 중 피험자에 의해 언급된 자아에 대한 특성, 그리고 자아에 특징적인 의미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면접자의 탐문에 대한 반응으로 구성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요.	자아에 대한 특성:탐문이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분절로 볼 수 없다.
	왜 남자라는 게 중요한가요? 저를 강하게 해 주기 때문이요. 왜 강해지고 싶나요? 잘 모르겠어요.	탐문과 이에 관한 반응: 탐문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분절로 채점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절하고 운동을 좋아해요.	두번째 자아에 관한 특징
	친절하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친구와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밖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운동을 잘 한다는 게 중요하나요? 네. 왜요? 제 친구들은 모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친해지려면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이어야 하니까요.	탐문과 “친절한”과 관련된 반응 (첫번째 분절의 일부분) 탐문과 “운동을 잘 하는”과 관련된 반응(두번째 분절의 일부분)
2. 피험자가 추론이나 의미를 설명하도록 허락되거나 격려된 분절만을 채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커요.	이같은 반응은 자신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왜 큰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없으므로 채점될 수 없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커요. 큰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썄요... 그러면(크다면) 전 자전거를 탈 수 있으니까요.	이같은 반응은 피험자가 큰 것이 왜 자신에게 중요한지에 관한 의미를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채점될 수 있다.

부록 Ⅲ-1.
품행장애 집단의 객체로서의 자아

연구대상	도식	물리적 자아 도식				활동적 자아 도식				사회적 자아 도식				심리적 자아 도식				합
	수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0	0	0	0	1	0	1	4	2	0	3	0	2	2	0	0	15
2		1	0	0	0	2	1	1	0	2	0	2	1	1	0	1	0	12
3		1	0	0	0	2	2	1	0	1	0	1	0	1	0	0	0	9
4		1	1	0	0	1	3	1	0	0	0	1	0	0	1	0	1	10
5		1	1	0	0	1	0	0	0	5	0	4	0	1	2	1	1	17
6		1	0	0	0	1	2	0	0	1	0	1	0	0	1	0	0	7
7		2	0	0	0	8	0	3	0	1	0	3	0	0	0	3	0	20
8		1	0	0	0	4	1	0	0	2	0	2	0	0	1	3	0	14
9		4	0	0	0	5	1	0	0	2	0	0	0	1	1	0	0	14
10		0	0	1	0	0	1	2	2	1	1	2	0	0	2	0	0	12
11		1	0	0	0	4	0	0	0	1	0	0	0	2	0	0	0	8
12		2	0	0	0	6	0	1	0	1	0	0	0	3	2	0	0	15
13		1	0	0	0	8	2	0	0	2	0	0	0	2	2	1	0	18
14		2	0	0	0	5	0	1	0	2	0	0	0	0	0	1	0	11
15		0	0	0	0	2	2	5	2	1	1	0	0	0	0	2	2	17
16		3	0	0	0	3	2	0	2	1	0	2	0	2	1	0	0	16
17		1	0	0	1	0	3	2	0	4	0	0	0	0	0	1	0	12
18		1	1	1	0	1	3	2	0	4	0	0	0	0	1	1	0	15
19		2	0	0	0	5	3	1	0	1	2	1	0	0	0	0	0	15
20		1	0	0	0	4	0	4	1	0	0	2	0	1	1	0	0	14
21		0	0	0	0	5	0	1	0	0	0	0	0	1	1	0	0	8
22		0	0	0	1	0	1	1	2	0	0	4	0	1	0	2	1	13
23		1	0	0	0	2	2	5	2	1	1	0	0	0	0	2	2	18
24		2	0	0	0	3	2	1	2	1	0	2	0	1	1	0	0	15
25		1	0	0	1	0	3	1	0	4	0	0	0	1	0	1	0	12
26		1	1	1	0	2	3	2	0	0	0	0	0	0	1	1	0	12
27		2	0	0	0	4	3	1	0	1	2	1	0	0	0	0	0	14
28		1	0	0	0	4	0	4	1	0	0	2	0	1	1	0	0	14
29		0	0	0	0	5	0	1	0	0	0	1	0	1	1	0	0	9
30		0	0	0	1	0	1	1	2	0	0	3	0	1	0	2	1	12
합		34	4	3	4	88	41	43	20	41	7	37	1	23	22	22	8	398
		45				192				86				75				

부록 Ⅲ-2.
일반 청소년 집단의 객체로서의 자아

연구대상	도식		물리적 자아도식				활동적 자아도식				사회적 자아도식				심리적 자아도식				합
	수준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1	0	0	2	3	1	1	2	1	0	1	1	0	0	1	2	16	
2		0	0	0	1	2	2	2	4	3	0	2	0	1	0	0	2	19	
3		0	0	0	0	0	0	0	1	0	1	2	2	0	1	2	5	14	
4		0	0	0	0	0	1	2	2	0	0	0	1	0	2	0	3	11	
5		1	0	1	0	3	1	2	1	3	0	2	1	0	0	2	0	17	
6		1	0	0	2	3	1	1	2	1	0	1	1	0	0	1	2	16	
7		0	0	0	1	2	2	2	4	3	0	2	0	1	0	0	2	19	
8		0	0	1	0	0	1	3	2	0	0	5	2	0	3	0	1	18	
9		2	0	1	1	1	1	1	3	1	1	3	1	0	1	1	1	19	
10		0	0	0	0	0	4	1	1	0	0	2	4	0	0	2	0	14	
11		0	0	0	0	0	3	1	1	0	0	1	3	0	2	0	2	13	
12		0	0	0	0	0	1	1	4	0	0	2	1	0	0	1	0	10	
13		1	0	1	0	1	1	2	3	0	0	1	0	0	0	1	2	13	
14		0	0	0	0	0	0	3	2	3	0	0	0	1	4	2	0	15	
15		1	3	1	1	4	2	1	1	1	0	0	0	0	1	0	2	18	
16		2	0	1	1	3	1	1	0	2	0	3	0	1	2	1	2	20	
17		0	0	0	0	0	0	3	2	3	0	0	0	1	4	2	0	15	
18		1	3	1	1	4	2	1	1	1	0	0	0	0	1	0	2	18	
19		2	0	1	1	3	1	1	0	2	0	3	0	1	2	1	2	20	
20		2	0	1	1	1	1	1	3	1	1	3	1	0	1	1	1	19	
21		0	0	0	0	4	1	1	4	1	0	0	0	0	0	0	0	11	
22		0	0	0	0	0	1	0	1	0	0	1	1	0	1	4	0	9	
23		0	0	0	0	0	1	0	2	0	0	4	2	0	1	1	1	12	
24		1	0	1	0	0	1	3	0	0	0	2	1	0	1	0	1	11	
25		0	0	1	0	1	2	1	5	0	0	1	0	0	1	0	0	12	
26		2	0	1	1	1	1	1	3	1	1	3	1	0	1	1	1	19	
27		0	0	0	0	1	0	2	1	1	0	0	0	1	0	1	0	7	
28		0	0	0	0	0	1	0	2	0	0	4	2	0	1	1	1	12	
29		1	0	1	0	0	1	2	0	0	0	3	1	0	1	0	1	11	
30		0	0	1	0	1	2	1	5	0	0	1	0	0	1	0	0	12	
합		18	6	14	13	38	37	41	62	28	4	52	26	7	32	26	36	440	
		51				178				110				101					

부록 Ⅲ-3.
품행장애 청소년 집단의 주체로서의 자아

연구대상	도식 수준	연속성 자아도식				독특성 자아도식				수행인 자아도식				합
	1	2	3	4	1	2	3	4	1	2	3	4		
1		1	0	0	0	0	0	0	0	0	1	0	0	2
2		2	0	1	0	0	0	0	0	0	0	3	0	6
3		1	0	0	0	0	1	0	0	0	0	1	0	3
4		0	0	1	0	0	0	0	0	1	0	1	0	3
5		0	0	0	1	0	0	1	0	1	0	0	0	3
6		1	1	0	0	0	1	0	0	1	0	0	0	4
7		2	0	0	1	0	0	0	0	1	0	0	0	4
8		1	0	0	0	1	0	0	0	1	0	0	0	3
9		1	0	0	0	0	0	0	0	1	0	0	0	2
10		1	0	0	0	0	0	0	0	1	0	0	0	2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1	0	0	0	0	0	0	0	1	0	0	0	2
13		1	0	0	0	0	1	0	0	0	1	0	0	3
14		1	0	0	0	0	1	0	0	0	0	1	0	3
15		1	0	0	0	0	0	0	1	0	0	1	0	3
16		1	0	0	0	0	0	0	0	1	1	0	0	3
17		2	0	0	0	0	0	0	0	1	0	0	0	3
18		1	0	0	0	0	0	0	0	3	0	0	0	4
19		1	0	0	0	0	0	0	0	1	0	0	0	2
20		1	1	0	0	0	0	0	0	0	1	0	0	3
21		2	0	0	0	0	1	0	0	0	0	1	0	4
22		0	0	1	0	1	1	0	0	0	0	1	0	4
23		1	0	0	0	0	1	0	1	0	0	1	0	4
24		1	0	0	0	0	0	0	0	1	1	0	0	3
25		2	0	0	0	0	0	0	0	1	0	0	0	5
26		1	0	0	0	0	0	0	0	3	0	1	0	4
27		1	0	0	0	0	0	0	0	1	0	0	0	2
28		1	1	0	0	0	0	0	0	0	1	0	0	3
29		1	0	0	0	0	1	0	0	0	0	0	0	2
30		1	0	1	0	1	2	0	0	0	0	1	0	6
합		31	3	4	2	3	10	1	2	20	6	12	0	94
		40				16				38				

부록 Ⅲ-4.
일반 청소년 집단의 주체로서의 자아

연구대상 \ 도식 수준	연속성 자아도식				독특성 자아도식				수행인 자아도식				합
	1	2	3	4	1	2	3	4	1	2	3	4	
1	0	0	0	1	0	0	1	0	0	0	1	1	4
2	0	0	1	0	0	0	0	1	0	0	1	0	3
3	0	0	0	1	0	0	1	0	0	0	1	1	4
4	0	0	0	1	0	0	0	1	0	0	1	0	3
5	1	0	0	0	0	0	0	0	0	0	1	0	2
6	0	0	0	1	0	1	0	0	0	0	1	1	3
7	0	0	1	0	0	0	0	1	0	0	1	0	3
8	0	0	1	0	0	0	0	1	0	0	1	0	3
9	0	0	2	0	0	1	1	0	0	0	1	0	5
10	0	0	1	0	0	0	1	0	0	0	1	0	3
11	1	0	2	1	0	0	0	0	0	0	1	0	5
12	0	1	1	0	0	1	0	0	0	1	1	0	5
13	1	0	3	0	0	0	0	0	0	0	2	2	8
14	0	0	1	0	0	1	0	0	0	0	1	0	3
15	1	0	0	0	0	0	1	0	0	0	0	1	3
16	2	0	0	1	0	0	0	1	0	0	1	0	5
17	0	0	1	0	0	1	0	0	0	0	1	0	3
18	1	0	0	0	0	0	1	0	0	0	0	1	3
19	2	0	0	1	0	0	0	1	0	0	1	0	5
20	0	0	2	0	0	1	1	0	0	0	1	0	5
21	0	0	1	0	0	1	0	0	1	0	0	0	3
22	0	0	0	1	0	0	0	0	0	0	1	0	2
23	0	0	0	1	0	1	0	0	0	0	1	1	4
24	1	0	0	0	0	0	1	0	0	0	1	0	3
25	0	1	0	0	0	0	1	0	0	0	1	0	3
26	0	0	2	0	0	1	1	0	0	0	1	0	5
27	0	0	1	0	0	0	0	0	0	0	1	0	2
28	0	0	0	0	0	1	0	0	0	0	1	1	3
29	0	0	0	1	0	0	1	0	0	0	1	0	3
30	1	0	0	0	0	0	1	0	0	0	1	0	3
합	11	3	20	10	0	9	13	6	1	1	28	9	111
	44				28				39				

